

필리핀 단기어학연수 파견자 결과보고서

1. 기본정보

이름	박민*	학번	
파견국가	필리핀	파견도시	수빅
파견대학	필리핀대학마닐라	기간	2017. 6. 17(토) ~ 7. 15(토)

2. 파견대학, 수업 및 Activity

구분	결과보고(서술형)
파견대학	<p>파견대학 위치, 규모 및 시설, 전체적인 분위기 등에 대하여 서술해주세요.</p> <p>SLC는 필리핀마닐라대학교의 어학원이지만 마닐라에 위치하지 않고, 수빅에 위치해 있습니다. 분위기는 신창 같습니다. 주위가 밀림, 정글정도이고 주위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건물 하나에 기숙사와 강의실이 같이 있습니다.</p>
수업	<p>수업내용, 수업방법, 분반여부, 강사, 과제, 수업준비 등 수업 전반에 대하여 서술해주세요.</p> <p>4시간의 1대1수업, 4시간의 그룹수업으로 총 8시간동안의 수업이 있습니다. 스피킹, MMC, 토익스피킹, 단어, 숙어, 리딩 수업 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분반은 어학원에 가서 레벨테스트를 통해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신의 수준에 따라 책을 배정받고, 그룹이 나뉘집니다. 과제는 많지 않고 수업준비는 책과 볼펜 하나정도면 충분합니다.</p>
Activity	<p>수업 외에 별도로 진행된 Activity에 대해 서술해주세요.</p> <p>- Activity 종류, 내용, 준비물, 추가비용 등</p> <p>토요일 액티비티는 학점을 이수하려면 필수적으로 해야 합니다. 첫째주에는 리조트를 갔고 점심값 700페소, 락커비 50페소로 총 750페소가 들어갔습니다. 수영장이랑 비치에 있는 곳이라 수영복을 준비해야 합니다. 둘째주에는 고아원은 갔는데 기부금을 300페소씩 냈습니다. 셋째주는 요트투어였는데, 들어가는 비용은 없었습니다.</p>

3. 생활전반

구분	결과보고(서술형)
날씨	현지 기후 및 유의점 햇빛이 강합니다. 선크림을 꼭 가져가서 바르세요. 그리고 우기 때 가시는 분들은 우산 꼭 챙겨가세요.
안전	현지 안전 상황 여학생들은 밤에 돌아다니실 때 남학생들이랑 돌아다니는 게 좋습니다.
숙소	학교기숙사(O) 홈스테이 () 외부 숙소() 기타() 숙소 시설, 분위기, 규칙, 유의사항 등 숙소 전반에 대한 평가 숙소시설은 많이 기대를 하지 않는 것이 좋고, 벌레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도 방청소랑 빨래랑 해주셔서 좋습니다. 통금은 다음날 수업이 있으면 밤10시까지고, 다음날 수업이 없으면 12시 까지입니다.
식사	학교식당(O) 홈스테이 () 외부식당 () 기타() 본인이 주로 이용한 식사방법 체크, 식사 전반에 대한 평가 밥은 한식이고, 맛도 많이 나쁘지 않습니다.
교통	통학방법, 시내교통 관련 주로 FB와 택시를 이용하게 됩니다. 여학원에서 밖으로 나갈때는 FB를 타고 나가고, 들어올 때는 택시 또는 Special FB를 타고 들어올 수 있습니다.

4. 소요경비 (본인이 지출한 총 비용)

단위:원

※ 출국 전 사전 납부 금액 외에 추가로 현지에서 본인 지출내역을 써주세요.

항목	비용	비고(간략한 비용내역 등)
항공료,유학허가증(SSP), 여행자보험	726,000	출국 전 사전 납부
생활비	450000	
합계	1176000	

5. 출국 전 준비사항

파견 전 반드시 꼭 알아야 할 사항, 알았으면 좋았을 사항 중심으로 서술해주세요.

고아원 프로그램에서 300페소의 기부금이 있습니다.

한국으로 귀국하기 위해 클락공항을 사용하려면 공항세 600페소가 있습니다.

FB 비용은 13페소이지만 밖에서 학원에 들어올 때는 FB 한 대당 100-120페소에 탈 수 있습니다. 택시는 120-200페소정도 하고, 퍼블릭 마켓에 갈때는 지프니를 이용하는데 지프니는 8페소입니다.

6. 본인 소감 및 평가

본인의 경험담, 느낀점, 향후 계획 등을 솔직하고 자유롭게 작성해 주세요.

기숙사는 기대를 많이 안해서 그런지 한달동안 잘 지낼만 했습니다. 다만 에어컨의 성능이 좋지 않아 조금 덥기도 했습니다.

현지 선생님들은 다들 좋으십니다. 대화를 하면서 틀린 발음이나 문장을 고쳐주시기도 하고, 잘할 수 있다며 용기를 주시기도 합니다. 처음에는 영어로 대화하는 것이 어색했는데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선생님들과 영어로 농담도 하면서 재밌게 지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수업시간에 오늘 하루는 어떤지, 어제는 무엇을 했는지 등 안부를 물어보시는데 저는 선생님과 그런 대화를 하면서 영어가 많이 늘었다고 생각합니다. 하루 스케줄을 선생님과 말하면서 내 계획과 생각을 영어로 직접 표현하고, 수업시간에 배웠던 숙어나 단어를 종종 사용하면서 대화를 하니 한국에서 영어 공부를 할 때보다 더 쉽게 익히게 되는 느낌이었습니다.

이번 단기어학연수를 통해 기대하는 저의 목표는 영어에 대한 자신감이었습니다. 한달이라는 짧은 기간동안 영어의 모든 부분에 자신감이 생긴 것은 아니지만 영어로 대화하는 것에 대한 자신감만은 얻고 가는 것 같습니다. 한국에서 돌아와서도 열심히 공부하여 나중에는 더 많은 단어를 사용하면서 대화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7. 사진보고서(6장 이상)

	
<p>수빅투어</p>	<p>ANVAYA COVE</p>
	
<p>바비큐 파티</p>	<p>요트투어</p>
	
<p>어학원 점심식사</p>	<p>그룹수업</p>